| 산업통상자원부<br>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참 고 자 료** | 힘내라 대한민국 |
|---|---|---|

**2020년 11월 15일(일) 14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| 배포일시 | 2020. 11. 13(금) | 담당부서 |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이승헌 과장(02-2100-1373) | 담당자 | 이지현 사무관(02-2100-1376) |

#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(FTA)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최종 서명

- ▲ **무역규모, 역내총생산(GDP), 인구 등에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출범 -**
- ▲ **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2007)을 향상하여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% 수준에서 90% 이상으로 상향하고, 지재권·전자상거래 등 9개 규범 장(章) 신규 도입**
- ▲ **역내 통일된 무역규범(원산지기준 등)을 도입하여 우리기업 편의성 대폭 제고**

□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·중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.15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 :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을 최종 서명**함

* 아세안 10개국 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*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,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 未복귀

○ 금번 서명은 '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**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**하는 것이며, 특히 **코로나19 상황**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**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(FTA)을 출범**시키는 큰 의미가 있음

○ '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, RCEP은 그간 **31차례 공식협상, 19차례 장관회의**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하였음

* 특히 코로나 상황하 화상회의 체제로 변경, 금년 10차례 수석대표, 3차례 장관회의 화상 개최

○ 작년 **제3차 정상회의('19.11)**에서 **협정문 타결*을 선언**하면서, '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**잔여 쟁점을 마무리하고 서명**하기로한 바, 금번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임

* RCEP 협정문 구성 : 20개 챕터, 17개 부속서 등 총 1만 5천페이지

○ 특히, **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**를 하였는 바, 과거 2차례 **공식협상(15년 부산, 17년 송도)을 개최**하였을 뿐 아니라,

-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비(非)**아세안국**(AFP : ASEAN FTA Partners) **조정국**(facilitator)**을 장기간 수행**하면서, 원산지 등 **주요 쟁점을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**

- 아울러, 인니·싱가포르 등 **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수시로 물밑 접촉**을 하면서 **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상 진전 독려**

## 【 RCEP 협정의 의의 】

□ RCEP 협정은 **규모, 코로나 위기 극복,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**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바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□ 첫째, RCEP 협정은 **무역규모, 역내총생산(GDP),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%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**로, USMCA·CPTPP 보다 규모가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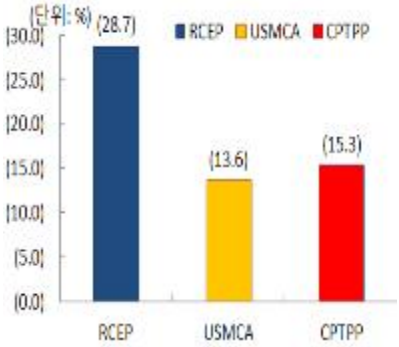
* USMCA : 旣발효(94년)된 북미자유무역협정(미국·캐나다·멕시코, NAFTA)이 18.9월에 개정 합의되면서 USMCA로 변경

* CPTPP : 旣타결(15.10월)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12개국, TPP)이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11개국, CPTPP)으로 변경되어 발효(18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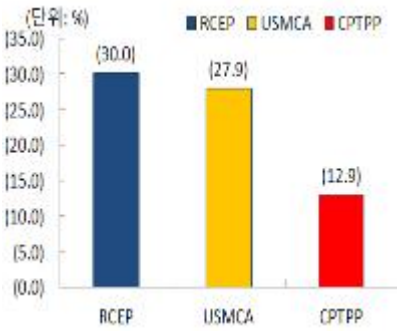
〈 RCEP과 USMCA, CPTPP간 주요지표 비교, 2019년 〉 < 출처 : IMF >

| 구분 | 무역규모 | | 명목 GDP | | 인구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조달러 | 全세계 비중 | 조달러 | 全세계 비중 | 억명 | 全세계 비중 |
| RCEP | 5.4 | (28.7) | 26.3 | (30.0) | 22.6 | (29.9) |
| USMCA | 2.5 | (13.6) | 24.4 | (27.9) | 4.9 | (6.5) |
| CPTPP | 2.9 | (15.3) | 11.3 | (12.9) | 5.1 | (6.7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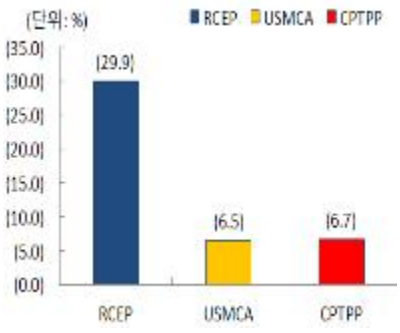
전세계 대비 무역 비중 비교(19년)




전세계 대비 GDP 비중 비교(19년)




전세계 대비 인구 비중 비교(19년)




* 출처: IMF

○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**국제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**하고, **자유무역 확산을 도모**할 것으로 기대되며, **다자체제의 약화, 국제 공급망(GVC)의 블록화·지역화 경향**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

○ 특히,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'19년 **對RCEP 수출액이 2,690억불(우리 전체 수출액의 50%)**로 對USMCA(898억불), 對CPTPP(1,260억불)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, 향후 우리 **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**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□ 둘째, RCEP 협정에는 **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**되어 있는 바,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**신남방정책이 가속화** 될 것으로 전망됨

○ 아세안은 우리에게 **상품 시장 추가개방** 뿐만 아니라, 게임·영화 등 **서비스 시장도 개방**하였는바, 양국간 **교류·협력**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

○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, 아세안과 무역·경제 협력을 넘어 **사회·문화·인력**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

* 지난 30년간 한-아세안 교역 30배, 투자 40배,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

□ 셋째, **역내 통일된 무역규범**을 마련하고, **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**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

○ 예를 들면, 종래에는 **중국, 아세안, 호주에 세탁기 수출**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으나, **RCEP으로 하나로 통일**되어서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됨

○ 아울러, **전자상거래 장(챕터)**을 신규 도입하여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,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**지재권 장을** 개선하였으며, **투자자유화**를 강화하는 등 **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**시킴

□ 넷째, RCEP 체결시 **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**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

○ 일본과 FTA 체결시 우리는 **세계 경제대국 1~5위**(미국·중국·일본·독일·인도)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며, **10위 경제대국과도 브라질 제외 모두 FTA 보유**하게 되는 바, 명실상부한 **개방형 통상국가** 위상을 확보하게 됨

○ 다만, RCEP에서는 **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**한다는 점, **우리 산업의 對일본 민감성** 등을 고려하여, **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**지었음

## 【 분야별 주요내용 】

### 상 품

□ 기(旣)체결 **FTA를 업그레이드**하여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, **신규 FTA인 일본**과는 **우리 민감성을 최대 반영**하여 전체 이익균형 도모

○ **(對아세안)** 한-아세안 FTA(79.1~89.4%)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(1.7~14.7%)하여 **관세철폐수준**을 **국별 91.9~94.5%까지 제고**

- **자동차·부품, 철강** 등 **우리 핵심품목** 뿐만 아니라, **섬유, 기계부품** 등 **중소기업 품목** 및 **의료위생용품** 등 **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**도 **추가 시장개방 확보**

**< 참고 : 주요 아세안 국가별 對韓 추가 관세철폐 현황 >**

| 국가 | 추가 관세철폐 | | 주요 품목(관세율: %) |
|---|---|---|---|
| | 품목수 | 수입액 | |
| 인니 | 1,134개(11.3%) | 4.6억불(3.9%) | 자동차부품(0-40%), 철강재용기(8-15%), 형강(7.5%), 합성수지(5-10%), 베어링(5%), 섬유사(5%), 의료위생용품(5%) 등 |
| 필리핀 | 1,140개(11.6%) | 16.4억불(33.4%) | 자동차부품(1-10%), 화물자동차(1-30%), 아연도강판(10%), 철강관(7-10%), 의약품(1%), 베어링(1%), 폴리에스터섬유(10%) 등 |
| 태국 | 1,238개(13.0%) | 8.0억불(8.9%) | 자동차부품(10%), 원동기(10%), 화물자동차(40%), 합성수지(5%), 섬유기계(10%), 의료위생용품(10%), 세정용품(10%) 등 |

- 한-아세안 FTA 발효('07년) 당시 대비 '19년 기준 **對아세안 수출은 2.5배 수준으로 확대***되었는바, RCEP 체결로 인해 아세안과의 **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**될 것으로 기대됨

* 우리의 對아세안 수출(전체 수출대비 비중) : 07년 387억불(10.4%) → 19년 951억불(17.5%)

○ **(對日) 양국 철폐수준**의 경우, **품목수로는 모두 83%**로 **동일**하나, **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%p 추가 관세철폐**(韓 76%, 日 78%)

* 공산품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2.4%p 추가 관세철폐(품목 기준 韓 91.7%, 日 94.1%)

-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, 기계 등 주요 **민감 품목은 양허제외**하고, **개방품목**도 **장기**(10~20년) 및 **비선형철폐**를 **다수 활용**하여 보호

* 우리는 일본보다 장기철폐(10년 이상) 비중이 높으며(韓 41.6%, 日 17.1%), 특히 우리는 20년 철폐(韓 455개, 日 2개) 및 비선형철폐(韓 105개, 日 없음) 다수 활용

○ **(對중·호·뉴)** 90% 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던 **중국(韓 92%, 中 91%), 호주(韓 98%, 호 100%), 뉴질랜드(韓 98%, 뉴 100%)**과는 대부분 旣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**개방수준**을 **유지**

* 발효시점 : (한-중) 15년 12월, (한-호) 14년 12월, (한-뉴) 15년 12월

□ **농·수·임산물**의 경우 **민감성 보호**를 위해, 대부분 旣체결 FTA (한-베, 한-중 등)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하여 **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**함

○ 특히, 핵심 민감품목인 **쌀·마늘·양파·고추** 등과 **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·오징어·돔·방어** 등을 **양허제외**로 보호하고,

* 양허제외 : ①전통적으로 민감성이 높은 품목 : 쌀, 고추, 마늘, 양파, 사과, 배, 명태(냉동) 등, ②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 : 바나나, 파인애플, 새우(냉동), 오징어(냉동), 돔(활), 방어(활) 등

○ 일부 개방품목도 **관세 인하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**하여 우리 농·수산·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

## 서비스 · 투자

□ **서비스 부문**은 **문화콘텐츠·유통·물류**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**한-아세안 FTA**('07년 발효) 대비 **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함**

○ **필리핀 · 태국 · 인니** 등은 **온라인게임, 애니메이션, 음반 녹음, 영화제작·배급·상영** 등을 추가 개방하여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함

- **일본**은 **세계무역기구(WTO) 서비스협정('95)** 대비 **온라인게임** 등 일부*를 개방하고 **호주 · 중국 · 뉴질랜드**는 우리와 **양자 FTA 수준**으로 개방

* 온라인게임서비스, 쌀·담배·소금에 대한 도·소매·중개서비스 등

○ 우리나라는 **既체결 FTA 및 현행 법령**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**현행 개방 수준**을 유지함

**< 참고 :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(예시) >**

| | |
|---|---|
| **문화콘텐츠** | · **온라인게임** 최소납입자본금 요건 충족시 지분제한 없이 합작법인 설립 허용 (필리핀)<br>· **교육용** 온라인게임 외자지분제한(49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(태국) |
| | · **애니메이션, 음반녹음, 라디오·TV** 등 외자지분제한(49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(필리핀)<br>· **영화 제작·배급·상영, 음반제작, 공연** 등 외자지분제한(51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(인니) |
| **유통·물류** | · **자국생산상품 소매, 의약품 등 도매** 외자지분제한(49, 70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(태국)<br>· **식음료, 의류 분야 도매·프랜차이징** 외자지분제한(51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(인니) |

□ **투자 부문**은 **최혜국대우** 도입, **이행요건 부과 금지*** 등을 통해 **한-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** 규범을 확보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

*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의 요건 부과 금지

## 규범 분야

□ **(전반)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** 마련을 통해 **안정적인 무역·투자 환경**을 조성하였으며,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-아세안 FTA 대비 **9개의 장(챕터)*을 신규 도입**하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

* 지식재산권, 전자상거래, 경쟁, 중소기업, 정부조달, 통관 및 무역원활화, SPS, TBT, 자연인의 일시 이동 등

□ **(원산지)**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**원산지 기준 및 절차를 개선**하고, **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**

○ **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**하고, **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***하여 우리 기업의 **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**함

* 그간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시,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,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·신고 절차 간소화

○ 아울러,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·가공하더라도 **재료누적을 인정**받게 되어, **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**를 통한 **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** 기대됨

□ (지식재산권) **저작권·특허·상표·디자인**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**포괄적인 보호 규범 및 침해시 구제수단**(민·형사 절차, 통관)을 마련함

○ 특히,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·형사 구제 등 규범을 마련하였는바 **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□ (전자상거래)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, 역내 공통 적용되는 **전자상거래 장을 신규 도입**

*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(Google & Temasek) : (19) 382억불 → (25) 1,530억불

○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및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**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**

□ (위생 및 검역조치) WTO 위생 및 식물위생(SPS) 협정을 기초로, **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절차를 구체화하고,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 추진**

○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**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**할 수 있는 규정 포함

□ (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) WTO 무역기술장벽(TBT) 협정을 기초로, **기존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선**하여 **기술규제 장벽 완화** 도모

○ TBT 조치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**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**하고 **협의 체계 마련** 등 신속한 문제해결 도모

## 【향후 계획】

□ 정부는 **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**를 진행하여 **적기에 발효**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

* RCEP 협정 발효요건 :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,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시 60일후 발효(未비준 국가는 未발효)

○ 또한,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**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**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이지현 사무관(☎ 02-2110-13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 RCEP 협정의 추진경과

□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,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(ASEAN+3) 및 일본이 제안한 CEPEA(ASEAN+6) 논의 진행

* EAFTA(East Asia Free Trade Area): ASEAN, 한국, 중국, 일본

* CEPEA(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): ASEAN, 한, 중, 일, 호, 뉴, 인

□ 2011.11월 ASEAN 정상회담시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(한,중,일,호,뉴,인)으로 구성된 RCEP의 2012.11월 개시 선언을 목표로 설정

□ **2012.11.20 동아시아 정상회의** 계기 **RCEP 협정 협상개시 선언**

□ 2013.5월 협상개시 후 '20.11월까지 **31차례 공식협상 및 19차례 장관회의, 4차례 정상회의 개최**

○ '17년 11월 제1차 장관회의에서는 '18년 RCEP 실질타결을 목표로 설정

○ '18년 11월 제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, '19년 타결을 결의

○ '19.11.4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, '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

□ **2020.11.15 제4차 RCEP 정상회의**에서 **15개국간 RCEP 협정 최종 서명**

< RCEP(15개국)과 CPTPP(11개국) 가입국 비교 >

